

행복한 생활습관 시리즈 Ⅲ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습관

(빌립보서 2:12-21)

Ⅰ. 행복은 친밀한 교제의 습관 속에 찾아옵니다.

인간은 홀로 고립될 때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을 보더라도 곁에서 함께 기쁨을 나눌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감동은 반감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중 하나가 바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여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교제가 언제나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 장애물로 이기적인 야심인 '다툼'과 겉만 화려하게 포장하려는 '허영'을 지적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도 헌신적인 두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있었으나, 자기주장과 경쟁심이 들어오면서 공동체가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품으라는 것은 내 생각과 태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 습관'이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는 유익은 늘 즐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과 부딪히고 갈등하는 과정 속에서 내 모난 부분이 깎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며 품는 훈련이 습관이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Ⅱ. 행복은 섬김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이웃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나와 내 가족'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 살지만, 나와 상관없는 타인을 섬길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많이 쌓고 대접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것을 쪼개어 타인을 섬겨본 사람만이 이 역설적인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는 예수님을 가리켜 오직 타인을 위해서만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의미로 '타자를 위한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김의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실제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시각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과거 실수나 허물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고,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상대방에게 낙인을 찍어버리지만, 예수님은 충동적이었던 어부 시몬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의 약점 뒤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시며 장차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될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들을 섬길 때 지금 당장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장차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가능성의 안목으로 대해야 합니다.

III. 행복은 겸손의 습관에서 완성됩니다.

친밀한 교제와 이웃을 향한 섬김을 끝까지 지속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의 최고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이를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비하(Kenosis)'라고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겸손의 결정체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이 법칙은 기독교의 핵심 역사입니다. 이 겸손의 여정이 지향하는 목적지는 단순히 보상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영적 법칙에 따르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반드시 높아집니다. 추락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있고, 존귀함이 찾아오기 전에는 겸손한 마음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겨 왕으로 높임 받았으나, 권력을 누리며 교만해져서 자기를 위해 승전 기념비를 세우다 결국 비참한 추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을 무시하고 공로를 자랑하는 교만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반면 지금 낮아지고 겸손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기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존귀케 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